

SAMC | LAW REVISION

1. 고압가스 반입 용기, 7월 6일부터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서 제외

7월 6일부터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 용기는 통관 여건 등을 고려해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마련하고, 7월 6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7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으로 운영한다.

[Read More](#)

2. 환경부,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 수입 금지

6월 30일부터 PET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며, 7월 3일부터 폐지도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6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3. '해외 직구'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7월 12일부터 목록통관 불가능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반입하던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 1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물품은 7월 12일부터 다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돼 관련 구비요건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7월 11일 이전에 해당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에 한해 목록통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손실보상 대상, '수출입·반송검사 물품 → 모든 세관검사 물품' 확대

7월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수출입·반송검사 물품'에서 모든 세관검사 물품'으로 확대·운영한다. 손실액이 소액인 경우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손실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7월 6일 개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2. 천재지변에 따른 운송수단 변경 시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 수월해질 듯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긴급하게 변경하는 경우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을 쉽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1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 없이 빠르게 관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Read More](#)

3. 자동차단기 부분품 등 11개 품목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 추가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송 시 관세부담을 덜 수 있는 '항공운임 특례 대상물품'에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등 11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특례 대상물품은 각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 받은 물품도 모두 검토해 선정한 것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원산지 누적기준' 반영 EU·베트남 FTA 8월 발효 ... 韓 섬유 수출 예상

관세청은 오는 8월 EU·베트남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 취득을 독려했다. 해당 협정에는 한국산 직물(fabrics)로 만든 베트남산 의류를 베트남産으로 간주하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 특례 조항인 '원산지 누적기준'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인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Read More](#)

2. FTA-PASS, 기관발급 C/O 신청 시 '수출신고정보' 자동 채움 기능 제공

앞으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UNI-PASS 수출신고정보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 기재된다. 이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도 1개 품목당 최대 17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관세청은 FTA-PASS와 UNI-PASS를 연계해 7월 16일부터 수출기업이 FTA-PASS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Read More](#)

3.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코로나19 확산이후 新남방국가들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ASEAN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 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 FTA 협상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뵘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7월 9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한 후, 최근 양측 모두 국내 절차를 완료해 이번에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9종에 대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였다. 이 중 베타카로틴(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항응고제 복용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신장/위장관 질환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당뇨병 질환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4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이 추가되었다.

[Read More](#)

2. '프로피온산' 미량 검출 시 천연유래 인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아도 생성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이 미량(0.1g/kg 이하)으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천연유래란 식품에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보존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식품첨가물을 뜻한다. 프로피온산은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하고 미생물 발효, 숙성 과정에도 생성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프로피온산 검출 시 영업자가 직접 천연유래로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 해당 식품을 전량 폐기하여야 했으나, 7월부터 미량의 프로피온산은 별도의 입증과정 없이 천연유래로 인정된다.

[Read More](#)

3. 시중 유통 향신료 14개 제품서 기준치 초과 쇧가루 검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후추, 계피, 큐민 등 분말형태 향신료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14개 식품서 안전기준(10.0mg/kg미만)을 초과 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향신료의 열매나 씨를 금속 재질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 밀, 칼날 등의 마찰로 금속성 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금속성 이물질이 인체 내부로 들어갈 경우 소화기·신장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